

내년 소하천정비 국가예산 대폭 증가

도, 358억원 확보... 300억원대 달성
작년 234억원 대비 124억원 증가

전북도는 2019년 소하천정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124억원(53%)이 증가한 358억원 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도의 소하천정비 국가예산 평균이 235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9년 국가예산은 큰 폭의 증가 와 더불어 300억원대를 최초 달성했

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국 평균대비 다소 낮은 전북의 소하천정비비율이 상승되는 계기가 되고, 도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소하천은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근 국 지성 집중호우시 우수를 배제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방재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시군과 연계하여 소하천정비 국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文대통령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 중요한 시기... 北특사 파견 이유”

“정기국회 국민 기대 커... 민생·경제 진정된 협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 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가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국가가 초당적으로 관문점 선안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이어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민름은 진정된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가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줄지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발발된 데 대해 “장기근로자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

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여나가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갸웃하게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임실군, 국내 최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대목과 소목·3D설계 등 6개 종목 경쟁 치열

국내 최고의 한옥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6회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가 임실군에서 개최됐다.

국내 최대 대회인 이번 한옥기능경기대회는 임실군 관내 사신대국민관광지 내에 위치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열렸다.

한옥기능경기대회는 (사)한옥기술인협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산림청,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산업안전공단, 전라북도, 임실군이 후원하며,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이 지원하는 국내 한옥기능인들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한옥의 주요직종인 한옥의 기공을 다루는 '대목'과 초안을 다루는 '소목', 벽을 마감하는 '비장'과 지붕을 짓는 '기와'를 비롯해 우리 고유의 난방인 '온돌' 등 종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대건축의 최고의 기술인 3D설계 등까지 6개 직종으로 나눠 경기가 치러졌으며 전통한옥의 전문가인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위원들과 한옥의 전문기술인 단체인 (사)한옥기술인협

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사)한옥기술인협회 김현중 회장은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에 비해 기와 직종까지 확대되어 한옥의 주요 공정 기능 전체 직종으로 치러졌다”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우리의 한옥기술의 정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회 현장을 찾아가 전국 각지에서 온 기능인들을 격려한 심민군수는 “지난 5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특별행사로 개최되던 것을 이곳 임실에서 열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 한옥기능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는 6개 직종 163명의 기능인들이 참가하여 그 기량을 겨루었으며, 대회 입상자 시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산림청장상,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 전라북도지사상, 임실군수상, 한옥기술인협회장상,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임실=진홍영기자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356회 전북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심보군 행안부 차관,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방문

심보군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심 차관의 이번 군산 방문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퇴직자 및 구직자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센터의 직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보군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퇴직자와 구직자들에게 재취업과 심리적 안정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센터가 퇴직자, 구직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와 고용노동부 등 13개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퇴직자 및 구직자들에게 심리안정부터 재취업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9월 현재까지 4,9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천 2백여 명의 시민들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 그 중 44명이 센터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위고선 운영관리사, 도배 실무양성과정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담, 중소기업컨설팅,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북도, 내년도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 공모 신청 접수

전북도는 소규모 6차산업 인증업체가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하게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수요자 중심 2019년도 소규모 6차 산업화사업 대상자'를 공모 한다고

밝혔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6차산업 인증업체를 사업 시행전 공모→심사→선정→보완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6차산업 성공 비전인 스모델로 중점육성 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6차산업 인증업체로 개소당 2억원(보조 7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 농업부서에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사업효과 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대상자를 선정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이시카와현 한스타일 전시회 진행

한글·한지·한식 등 한 스타일 알리기 나서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본교류지역인 이시카와현에서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도는 해외교류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교류분야 확대 및 한문화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자매우호지역을 대상으로 한스타일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류 17년째를 맞이하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총 3일 동안 진행되는 한스타일 행사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진행한 전라북도 문화강좌로 마감을 열었다.

이번 문화강좌는 이시카와현 국제교류협회의 협력으로 진행, 한지와

한글에 대한 강의 및 한지 조명, 한지 한남 등 공예체험 2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3일 식전행사로 진행된 비빔밥 퍼포먼스에는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시카와현 부지사, 이시카와현회의회장, 이영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등이 참여해 양 지역 교류행사를 빛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많은 공통점과 공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양 지역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해외교류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후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